

1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홈페이지·인터넷

전화설문 분석결과 <2>

인터넷 이용 사찰 7.2%가 홈페이지 운용

인터넷의 대표적인 검색엔진 이후에서 불교관련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모두 359개가 검색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단순히 야후에 등록된 홈페이지 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불교관련 홈페이지는 몇 개나 될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전화설문조사 결과 13.3%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단체)의 26.6%,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찰(단체)의 35.9%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순수하게 사찰만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비용을 조사한 결과 7.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불교계 교육기관 39.6%, 각종 불교단체 42.4%, 사회복지기관 59.7%, 기타 41.9% 등으로 조사됐다. 사찰의 홈페이지 보유 비율이 불교계 교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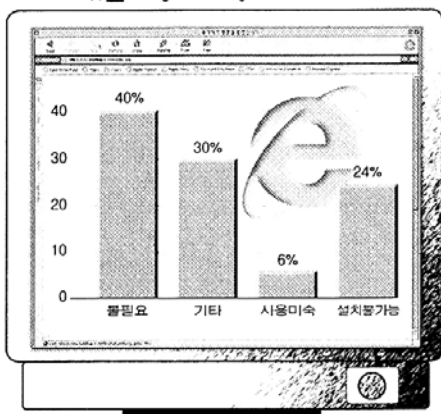
각 사찰, 불교 교육기관, 불교단체, 복지기관 등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홈페이지 운영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 분포를 보면 사찰 50.5%, 교육기관 60.1%, 불교단체 38.5%, 복지기관 48.8%, 기타 51.9%로 나타났다. 사찰의 경우 홈페이지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성은 대부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정적 평가 비율은 불교 교육기관 21%, 사찰 12.1%, 불교단체에 10.3%, 복지기관 2.4%, 기타 8.9%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사찰(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86.7%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가 적어 응답분포 비율의 의미는 없었지만 '운영 인력이 없어서'

다지 낮지 않았다. 사찰(단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37%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찰(단체)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 응답자의 74.6%여서 대단히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인터넷 사용 여부는 전체 지역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평균 비율 이상의 높은 인터넷 사용율을 보인 곳은 제주 89.5%, 광주 84.9%, 서울 83.6% 지역이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낮은 곳은 경남 66%, 충북 66.3%, 전북 67.4%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사찰(단체)가 지리적 등 제한 여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용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불교계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상당 수준 보편화 되고 있음이 반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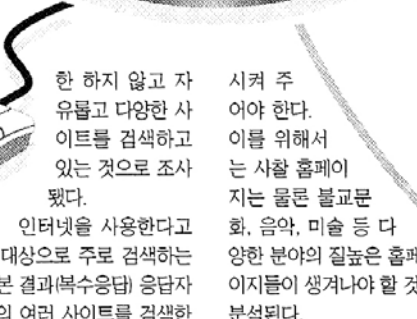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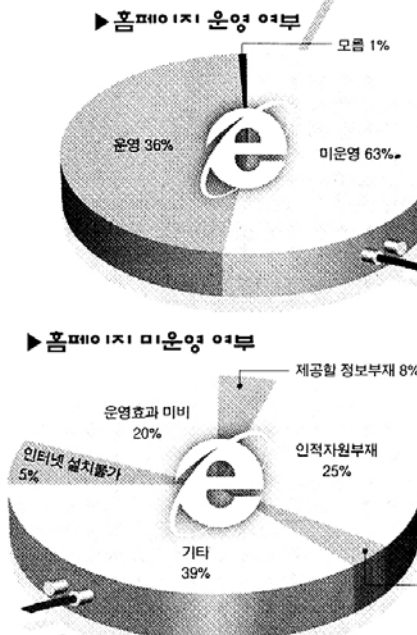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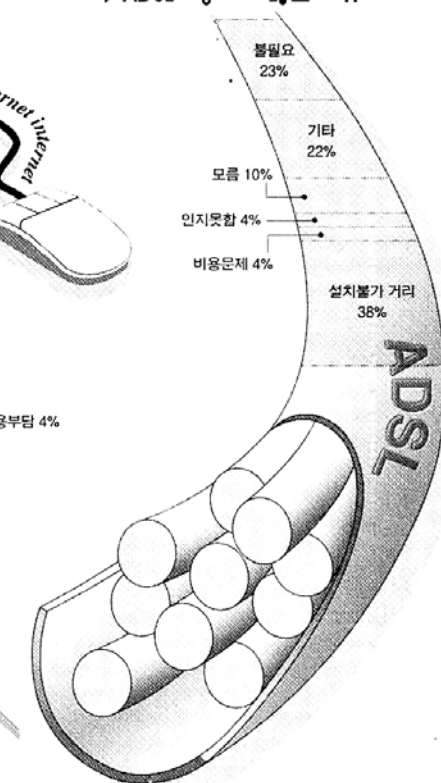
보인다. 특히 사찰이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역사적 기능을 갖고 있어 공격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초고속기기를 설치한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단체)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7명 가운데 231명(40%)이 인터넷으로 할 업무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73명(30%)이 설치할 예정이거나 비용 또는 인터넷 사용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또 35명(6%)이 컴퓨터 사용미숙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사찰(단체)의 정보화 인식과 인터넷 활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찰(단체)의 사무장 등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무직원에 대한 정보화 소양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찰(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로 검색하는 사이트는 종단 및 사찰 홈페이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반수 정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이트에 국

한 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검색하는 사이트를 파악해 본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53.5%가 기타의 여러 사이트를 검색한다고 응답했고 불교 사이트 중에서는 종단 사이트에 대한 검색이 33.4%, 사찰 사이트 26.1%, 뉴스 사이트 12.3% 개인 사이트 9.7%, 교양 사이트 9.2%, 온라인 서점 1.2%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신이 속한 종단 및 사찰 사이트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교양, 개인, 온라인 서점 등의 사이트에

▶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ADSL 사용하지 않는 이유



“운영 효과적이다” 응답 절반이상이나
홍보·포교 큰역할, 불교미술등 확산을

홈페이지 인터넷

PC보유 사찰·단체 많이 이용...74.6%
접속환경 ADSL·모뎀·인공위성이용 順

관, 단체, 복지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찰 홈페이지의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찰을 홍보할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사찰 홈페이지를 통한 신도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사찰 홈페이지가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사부대중, 특히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스님들의 정보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사찰(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상의 효과성을 조사해 본 결과 52.1%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반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13.7%로 소수에 불과했고 35.3%가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홈페이지의 효과성은 인정하면서 기타 제한 여건상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302명, '운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248명,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할 내용이 없어서' 96명, '홈페이지를 운영할 인터넷 환경이 안되어' 66명, '비용이 부담되어' 45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찰(단체)에서 홈페이지 운영이 부진한 이유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효과성에 대한 회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할 콘텐츠 부족도 홈페이지 운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 제 종단을 포함한 정보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님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화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 및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이 전통적으로 산중에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상 전통신 등 정보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아 인터넷 사용이 일반적으로 저조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전화조사 결과 인터넷 사용률이 그

있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찰(단체)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사찰 1,844개소 가운데 ADSL의 보급률은 약 74.5%인 1,373개소로 매우 높았고 전화도입 13.5% 249개소, 위성 인터넷 1.2% 23개소로 조사됐다. 교육기관 및 일부 도심 사찰의 경우 10%가량이 전용선을 비롯한 여러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접속라인 면에서도 오히려 일반인들의 인터넷 접속 환경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응답 분포로 본다면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라인이 대부분 매우 빠른 회선을 선호하고 있으며, ADSL이 설치되지 못하는 산간지역의 사찰들은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체 사찰 중 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ADSL, 위성 인터넷망의 보급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 홈페이지는 물론 불교문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홈페이지들이 생겨나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응답 분석-인터넷 사용여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체	%
사용	73	189	190	179	45	87	47	195	428	29	38	78	60	51	95	67	1851	74.1
사용안함	27	88	96	56	8	29	17	62	84	9	18	27	29	6	44	33	633	25.3
모름		4	2			1	1	2		1	2				1	1	14	0.6
합계	100	281	288	235	53	117	65	259	512	39	56	107	89	57	139	101	2498	100

기치유와 기공수련

가림출판사 윤희영 지음

“기치유와 기공수련”은 명상수련과 기치유를 통하여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과 암 등의 난치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치유'이란 특수명상수련을 통하여 강화된 시술자의 치유기(治癒氣)를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최후요령 등 물리적 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요법입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명상수련과 체계적인 이론, 실습을 통한 특수한 수련법으로 누구나 2~3개월 내에 치유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이미 명상수련을 통하여 기치유 능력을 전수하는 학과가 많이 생겨났으며, 대학병원에서도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기치유라는 것은 신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과학적 입증이 멀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현대의학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널리 응용될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인 명상수련은 수행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다 쉽고 빠르게 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자들의 기도와 선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련생 모집

2002년 8월 14일 오후 2~4시 수요반 개강 (16주 과정)

2002년 8월 22일 오후 7~9시 목요반 개강 (16주 과정)

※ 수련원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 9번지 남양빌딩 4층

한국기치유연구회
02) 725-5032, 5065 http://gi-clinic.pe.kr

간(肝)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몽달과 비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시킨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참다슬기 기음: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끓여 9가공을 달은 뒤 원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온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음을 만드는데 열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르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반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매동승복 직원일동 -

라복
직삼바지, 조끼
구김없이 세이팅 용이한 재질 ₩130,000
순면(40%는 면) ₩130,000

마 ₩150,000
모달사 ₩150,000
모직 ₩130,000

두루막
마 ₩130,000
모달사 ₩140,000
모직 ₩120,000

조끼용배
마 ₩130,000
모달사 ₩130,000
모직 ₩110,000

셔츠
라운드 ₩30,000
자이나 ₩30,000

※ 장삼, 가사, 벽장 및 기타역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매동승복
대구 고서대리내 → 동부정왕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053) 741-8131
FAX: (053) 741-8132
H.P: (011) 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범종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려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内로 하시는 寺刹은 縁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인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현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P : 011-369-2732